

공공데이터 창업 '오픈스퀘어' 광주에 문열다

동명동 '아이플렉스'에 개소
예비창업자 발굴·사업화 도움
해외진출 멘토링 등 창업 지원
비즈니스 창출 프로젝트 추진도



광주시 동구 동명동 '아이플렉스'에 조성된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공간 '오픈스퀘어-D'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돕는 '오픈스퀘어-D' (이하 오픈스퀘어)가 서울·부산·강원·대전·대구에 이어 광주에 생겼다.

10일 광주시와 행정안전부는 동구 동명동 '아이플렉스' 본관 1층에 '오픈스퀘어-D' 광주를 조성하고 지난 6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36㎡(41평) 규모인 오픈스퀘어는 기업 협업공간, 회의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아이플렉스'에 입주한 기업들도 이곳을 사용할 수 있다.

오픈스퀘어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창업을 도움 목적으로 조성됐다. 데이터 제공,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진출 멘토링 등 체계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식·정보통신 산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집적 시설인 아이플렉스에서 지역의 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거점지역

기반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화 비즈니스 창출 공동프로젝트 등이 이곳에서 추진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융합 집적단지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경제·문화·생활 등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는 새로운 시도와 인공지능의 핵심인 데이터와 인재 확보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2017년), 강원(2018년), 대전·대구(2019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오픈스퀘어를 설치해왔다.

서울 오픈스퀘어에 지난 2016년 입주한 '지속가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직원 평균 연봉, 비정규직 고용률

?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등 14개 공공기관의 40여종의 기업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비재무자치를 분석해주는 '후즈굿'을 개발해 세계은행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오픈스퀘어에 2017년 동지를 틈 '더재무컨설팅'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오픈플랫폼 및 금융감독원, 공공데이터 포털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이 간편하게 직접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재무디자'를 출시했다.

김성중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인공지능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광주시와 '오픈스퀘어-D'의 만남이 지역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픈스퀘어와 지역 데이터 기관간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 혁신 창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메뉴가격 설정과 가격인상 역효과

외식업 창업을 한 이후에 자영업자가 된 예비창업자들은 충분한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창업 초기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식자재 원가가 높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서 원가나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고 메뉴가격의 설정이나 가격인상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특히 개업 초반에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설정해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전략을 우선시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 수익률을 초반에 반영해 고객의 증가속도가 조금은 더디더라도 안정적인 수익회보 전략을 우선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외식업 창업을 하는 다수의 예비창업자들이 한번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해당 외식업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운영전략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문제는 잘못된 가격대의 설정이나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한 부분은 요즘 같은 불경기기에 고객의 입장에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인자라 자칫 고객의 가격저항을 불러일으켜서 해당 외식업소를 광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을 하락하게 하고 심하면 재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하락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적정 가격대 설정은 매우 중요하며 개업 이후 영업 도중에 가격인상은 신중을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격에 실망한 고객이 한번 발길을 돌리면 흔자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해 수십 명의 발길을 끊게 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겸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묘하고 치명적인 가격설정이나 가격인상의 오판은 외식업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창업을 하는 경우에 종종 노출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창업 전문가들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 가격대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지 가격 결정이나 인상 시 핵심적으로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주요 기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기준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 상권의 동종 업종들의 동일 또는 유사메뉴 가격 분석을 통한 경쟁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도출 방식이다. 두 번째 기준은 경쟁업소들과의 메뉴품질이나 상차림 구성, 서비스 메뉴 제공 등의 비교분석을 통한 고객의 기대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고객입장에서 설정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기준은 상권과 입지분석을 통한 주 이용고객층의 성향과 상권의 흐름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고객들의 구매력을 도출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 기준은 매장의 규모나 시설 수준, 주차장, 접근성, 서비스 품질 등 고객 편의성을 반영해 고객의 시각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가격대의 도출 방식이다.

이렇듯 적정가격대의 도출방식은 향후 가격인상 시의 도출기준과 중복되며 가격인상 시에는 적정가격 도출방식의 기준에 추가적으로 식자재 인상률, 물가 인상률, 인건비 상승률 등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수준의 절제된 인상률을 반영해 고객의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업 초반에 적정가격대의 설정에 실패하면 초반부터 고전하기 쉽고 영업 도중 고객 시각이 아닌 사업주 시각에서 시도하는 과도한 가격인상은 결국 고객들의 발길을 빠르게 돌려 가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전략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올해 광주·전남 창업기업

전년비 3161개·5.1% 감소

증기부, 9월 창업기업 동향 발표

올해 3분기까지 광주·전남지역 창업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61개(-5.1%)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9월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생겨난 창업기업 수는 광주 2만5910개·전남 3만2198개 등 전국 94만5322개로 집계됐다.

광주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6758개)에 비해 848개(-3.2%) 줄었다. 올 8월에는 2615개의 창업기업이 광주에 생겨났지만 9월에는 2503개에 그쳤다.

전남지역의 감소폭은 더 컸다. 지난해 1~9월 창업기업 수(3만4511)보다 2313개(-6.7%)나 줄었다. 전남 감소율은 경기(-5.9%)와 부산(-5.6%)보다 컸다.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 수는 광주 3만5627개·전남 4만5682개로, 광주 기업 수는 전체 창업기업(134만4366개)의 2.7%를 차지했고 전남 비중은 3.4%였다.

창업기업은 경기(26만5669개·28.1%), 서울(19만324개·20.1%)지역 위주로 몰려 있었다. 수도권 창업기업은 51만4570개로, 전체 창업기업 수의 절반(54.4%)을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선이공대생 창업지원형 기숙사 1호 창업자 선정

한국장학재단 지원

신승호씨 구강청결제 개발

광주지역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1호 대학생 창업자'로 선발됐다.

10일 한국장학재단은 "조선이공대 1학년 재학 중인 신승호씨가 광주시 서구 농성동 창업지원형 기숙사에 입주해 창업의 꿈을 이뤘다"고 밝혔다.

신씨는 '미세먼지를 잡는 파우치 타입 구강청결제'를 개발하고 광주 창업지원형 기숙사에 입주했다.

창업지원형 기숙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권역에 마련됐다. 기술창업,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소셜벤처) 등 다양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1년 주기 최대 2년 동안 기숙사실과 창업활동공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요금 등 실비를 제외하면 별도의 부담 없이 전담 자문위원을 통한 창업 멘토링, 창업가와의 관계형성 활동 등 차별화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씨는 재단 기숙사를 지원받는 동시에 기



한국장학재단 '1호 대학생 창업자'로 선정된 신승호씨가 장학재단 광주센터에서 최근 열린 '창업지원형 기숙사 소재 창업'을 위한 간담회에서 자신의 창업아이템을 설명하고 있다.

<장학재단 제공>

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의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받게 된다. 광주 창업지원형 기숙사를 본격적으로 연말까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창업하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단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를 통해 실제 창

업을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고용창출에 이바지 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재단은 오는 24일까지 광주, 부산, 대구, 대전지역 창업지원형 기숙사 추가 입주 신청을 받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